

9월 9일 구구데이(9·9Day) 닭고기 먹는 날! 눈과 입을 즐겁게 하는 명동 축제의 현장 속으로...



“대한민국 요리명장 1호가 추천하는 닭고기 요리 정말 맛있어요~”

본회를 비롯 양계협회, 농협 등 양계관련 단체에서는 지난 9월 8일 9·9Day를 맞아 서울 명동 하이헤리엇 광장 앞에서 닭고기 소비촉진 행사를 가졌다.

우연인지는 몰라도 처음 구구데이 행사가 시작된 2003년부터 작년까지 해마다 행사 당일날 비가 내려 혹시 올해도 비가 내릴까 걱정 했었는데 다행히 비가 오지 않아 서늘~한 가운데 구구데이 행사가 진행됐다(솔직히 기자는 이날 우산을 준비했었다).



여러가지 향토/지역 특미 닭고기 요리. 좌로부터 취닭, 진주찜닭, 매생이 삼계탕, 노호박 삼계탕

추석 분위기에 맞춰 전통 상차림 재현

명동에 도착하자마자 눈에 띄는 것은 ‘꼬꼬댁! 구구데이와 함께하는 한가위’ 라는 작은 현수막을 내건 추석 상차림이었다.

추석에 빠질 수 없는 음식인 송편에 닭고기를 넣어 만든 ‘닭고기 송편’과 ‘구기자 닭찜’ ‘흑로탕’ 등 닭고기를 이용한 이색 요리가 한상 근사하게 차려져 있었다.

그리고, 살짝 눈을 옆으로 돌려보니 ‘미니 구구데이 추석의 농가’가 점핑클레이로 만들어져 전시되어 있었다.

시골 초가집 지붕엔 잘 익은 호박이 주렁주렁 달려있고, 앞마당에는 닭과 병아리들이 놀고 있고, 한쪽에는 고추를 말리는 모습 등 우리 고향풍경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었다. 특히 이 점핑클레이는 예로부터 닭을 불러 모을 때

‘구구’라고 말해 온 점에서 의미를 따와 9월 9일을 ‘구구데이’로 정한 것을 시민들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가운데 구구데이를 알리는 깃발에 구구데이의 어원을 간략하게 적었더라면 어떻게 구구데이가 탄생됐는지 시민들이 더 쉽게 알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요리명장이 추천하는 닭고기 요리 시식

이날 명동을 찾은 시민들은 지난해와는 달리 색다른 닭고기 요리를 시식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 요리명장 1호가 추천하는 닭고기 특미 요리를 맛볼 수 있었다는 것.

닭고기에 알콜과 청양고추를 첨가해 잡냄새를 없애고, 은근히 조려낸 ‘취닭’과 단백질이 풍부한 닭고기에 검은콩, 검은쌀, 검은깨 등



전통 상차림 재현



‘미니 구구데이 추석의 농가’를 주제로 한 점핑클레이



한쪽에선 시식회가, 다른 한쪽에선 촬영이 진행되었다.

흑색의 잡곡과 인삼, 더덕 등을 첨가해 만든 ‘흑로탕’, 삶은 계란 노른자를 마요네즈로 양념해 흰자 속에 새우와 치커리와 함께 담은 ‘계란오픈스낵’ 등 여러 가지 닭고기·계란 특미음식이 소비자들의 입맛을 자극했다.

보여주기 위한 축제가 아니라 즐기는 축제로 정착되길...

이날 구구데이 행사는 많은 시민들의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쳤다. 그러나 한가지 아쉬움이 남는다.

해마다 구구데이 행사를 취재하기 위해 많은 취재진들이 몰린다. 이날도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어린아이들의 닭고기 시식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취재단이 한꺼번에 몰려들었다. 시식회장은 음식을 먹기 위한 시민들과 어린이들의 닭고기 먹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 위한 기자들로 붐비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자들은 보다 좋은 컷을 카메라에 담기위해 자리 쟁탈전(?)을 벌이다가 급기야는 신발을 신은 채로 테이블에 올라섰다. 그런데 바로 옆쪽으로는 정성껏 준비한 ‘향토/지



시물놀이로 시식회장의 흥을 돋구었다.

역특미 닭고기·계란요리’가 전시되어 있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행사진행요원들은 부랴부랴 그 음식들을 한쪽으로 치우기 바빴다.

물론 TV나 일간지 등을 통해 구구데이, 닭고기 먹는 날이 홍보되어 닭고기 소비촉진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얻는 것은 우리 닭고기 업계에 정말 필요한 것이며, 이를 위해 수십여일 동안 행사 진행 관계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은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닭고기 먹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은 것이 홍보라면, 그동안 접할 수 없었던 ‘향토·지역특미 닭고기·계란 요리’ 전시도 홍보라고 볼 수 있다. 밥상에 아무리 진미가 차려진들 신발 자국이 선명한 밥상의 밥을 어느 누가 선뜻 집어먹고 싶겠는가.

구구데이는 매년 양계수급안정위원회의 노력으로 점차 정착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어떤 한 부분만을 보여주기 위한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시민들이 보고, 듣고, 먹고, 느낄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는지. 